

高靈地域語의 母音順行同化

李 東 華

<목 차>

- | | |
|---------------|--------------------|
| I. 머리말 | 3.1 월용에서의 모음 순행 동화 |
| II. 음운체계 | 3.2 곡용에서의 모음 순행 동화 |
| III. 모음 순행 동화 | IV. 맺음말 |

I. 머리말

1.1 언어 연구에 있어서 자연어를 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 지역어(또는 방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언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언 연구자의 공통된 관심사에 속하며 때로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적어도 음운 연구에 있어서 언어의 보편성을 인정하더라도 국어 전체로 볼 때 예외에 가까운 특수한 언어 사실에 부딪히면 아무래도 그 언어(지역어) 자체의 음운체계 속에서 특수한 언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그 지역어의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독단이나 오류에 빠지기 쉽고, 보편성만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다 보면 언어의 특수성을 무시한 나머지 전강부회하는 식의 매우 부자연스런 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母音順行同化는 umlaut와 같은 모음역행동화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주로 活用에 있어서 語幹末母音과 語尾頭母音 사이의 모음동화를 말하는 것인 바¹⁾, 이런 현상은 지역어에 따라 매우 복잡한 음운

1) 이런 음운현상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병근(1978)에서는 京畿地域語를 中心으로 하여 語幹末子音의 脫落에 따른 어말모음과 語尾頭母音이 결합될 경우 어미두모음 '이'가 장모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에 대해 同化가 아닌 報償의 長母音化로 처리하고 있으며, 최명옥(1976, 1982)에서는 東南方言에 속하는 西南慶南方言과 月城地域語에 있어서의 이런 현상을 同化로 다루고 있으며, 최태영(1983)에서는 全州地域語에 이런 현상이 있는지 조차 확실

현상을 보인다. 더우기 한 지역어에 있어서도 面 단위 정도의 下位地域語 간에는 약간의 지역차를 보이는 것이다²⁾. 본고는 拙稿 (1983)에서 다뤄진 내용을 더욱 정밀화하여 이런 음운 현상을 지배하는 규칙과 함께 이런 음운 과정을 동기화(motivation)하는 음운론적 기제(phonological mechanism)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1.2 高靈郡은 慶尙北道의 西南端에 위치해 있어서 北으로는 星州郡, 東으로는 達城郡, 西南으로는 慶南 陝川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인데, 이미 新羅 儒理王19年(AD 42年)에 腦室朱日이 大伽倻國을 세워 그 都邑地로 삼고 王朝 16代 520年을 이어왔던 곳이다. 眞興王 23(AD 562年)에 新羅에 併合되어 大伽倻郡으로 되었다가 第35代 景德王 때 高靈郡으로 改稱, 康州(現 晉州)에 귀속되었다. 그 후 高麗 初 京山府(現 星州)에 귀속되어 李朝 太宗 13年(1413年) 縣으로 改稱되었다가 第26代 高宗 32年 다시 郡으로 改稱되고 1914年 4月 1日 郡面이 廢合됨에 따라 9面으로 되었다가 1930年 쌍둥면과 임천면을 併合하여 雙林面이 되었고 1979年 5月 1日 고령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현재 1읍 7면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고령지역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고령군의 중서부에 위치한 고령읍 지역의 언어를 말하여 조사 대상 지점 및 제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비고
김홍락	남	57세	농업	고령읍 지산 1동 89	주제보자
김삼호	"	55세	"	" " 102	"
김홍렬	"	47세	"	" " 101	부제보자
이삼두	"	67세	"	" 본관 1동 356	주제보자
이인	"	67세	"	" " 374	"
이찬식	학생	17세	"	" " 381	부제보자
이향미	여	16세	"	" " 388	"

히 밝히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이 지역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지는 최명옥(1982)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2) 고령 지역어도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게 실현된다.

예를 들면 중서부의 고령읍과 남부의 쌍림면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

<고령읍>

① nú+ato→noódo(泄)

② ci+ato→cado(負)

<쌍림면>

nú+ato→nuúdo(泄)

ci+ato→ciído(負)

이러한 지역차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는 後稿로 미룬다.

Ⅱ. 음운체계

이 지역에서 쓰여지고 있는 음소들을 순수자음, 유음, 순수모음, 활음으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최소대립어를 통해서 이들이 음소적 기능을 갖고 있음이 증명된다.

순수자음 : /p, p', p^h, t, t', t^h, c, c' c^h, s, s', k, k', k^h, m, n, ŋ/

pul(火), p'ul(角), p^hul(草)

tal(月), t'al(女), t^haal(假面)

ca-(眠), c'a-(編), c^ha-(蹴)

sal(肉), s'al(米)

ka-(行), k'a-(孵化), k'i-(消), k^hi-(大)

soom(綿), son(手), koom(熊), k^hoŋ(豆)

특히 이 지역은 대구에 인접해 있으면서 s와 s'가 中和되지 않고 변별적 기능을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³⁾

유음 : /l/

mul(水), tal(月)

순수모음 : /i, i, u, ε, ə, o, a/

ki-(匍匐), k'ε-(破)* k^hi-(大), k'o-(燃), k'a-(孵化), k'u-(夢),

sii-(辛), sε-(漏), sə-(立), s'i-(書), s'o-(射), sa-(買)

ki-(匍匐), k'ii-(貫), mal(斗), maal(鬻), tol(遇), tool(石)⁴⁾

이들 단모음은 w, j와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하는데 이들은 어두위치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wii(瓜), we(何), wəən(願), waŋ(王), jut^h(栖) jei(禮義), jaŋ(羊), jo(擲), jəl(十), 그러나 자음이 선행되면 이중모음은 극히 제한적으로 실현된다. 즉, j-계 이중모음은 표면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talljək(月曆), sinnjaŋ(食糧)등), w-계 이중모음은 주로 k나 h뒤에서 나타난다. kwi(耳), k'we(計策), k'wəŋ(평), kwaápu(寡婦), hwe

3) 이런 사실은 고령지역어를 경북지역어의 하위 방언이라 볼 수 있는 대구 방언권에 포함시키는 종래의 연구(이들테면 이기백 1969, 천시권 1973등)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방언 구획을 설정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4) 장모음은 이중모음과는 달리 한 개의 모음이 분명하지만 설명의 편의상 장모음 표시는 같은 모음을 거듭 쓰기로 한다.

蛔), hwaánha(明), 등

이들 자음 뒤의 j-제 이중모음은 통시적으로 주로 구개음화를 겪었거나 어간의 재구조화를 일으킨데 대해 자음 뒤의 w-제 이중모음은 대부분 단모음화되고 극히 제한된 환경인 k나 h뒤에서 실현되고 있음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그것은 k와 w가 [+high, +back]의 자질을 공유하는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 실현되며, h와 w는 조음위치가 매우 가깝고 [-cons, -voc]의 자질을 공유함으로써 조음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⁵⁾

활음 : /w, j, h, ʔ/

jan(薦), won(圓), jan(羊), wan(王),

c'ih(搗), ciíʔ(作),

이들 활음 중 h와 ʔ은 c'ih+ato→c'íato→c'íido, c'ih+ko→c'íkʰo 및 ciíʔ+ato→ciíiato→ciíido, ciíʔ+ko→ciíkʰo에서 변별적 기능이 확인된다.

운소(supra-segmental phoneme)에는 성조와 음장이 있다. 성조는 高調(H)와 低調(L)로 이루어 진다.⁶⁾

pé+ka→péga(梨) [H]

pe+ka→pega(腹) [L]

pee+ka→peega(倍) [LL]

음장은 단음과 장음이 변별적으로 쓰인다.

nun(眼), nuun(雪)

pam(夜), paam(栗)

Ⅲ. 모음 순행 동화

모음순행동화는 주로 活用에서 語幹末母音과 語尾頭母音이 연결될 경우

5) k, t, h 등이 j 앞에서 구개음화를 일으키거나 조음이 편리한 k나 h가 w와 결합하여 생산적으로 음성실현되는 것은 음운 변화에 있어서 조음 현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해 준다.

6) 성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보류하기로 한다.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허 봉, 1955, “傍點研究”, 「東方學誌」 2.

김완진, 1973, 「中世國語聲調の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11.

정연찬, 1974, “慶尙道方言 聲調研究.” 서울大 大學院

김차균, 1977, “경상도 방언의 성조체계.” 서울大 大學院

정 국, 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Ph.D Dissertation, Texas University.

활음화를 겪지 않고 후행하는 모음이 선행 모음에 완전동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어간말에 활음(h, ʔ)을 가진 경우에도 모음 사이에서 활음이 삭제된 뒤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음운 환경이 조성되면 완전동화를 일으키게 된다. 어간말모음은 i, i, u, ɛ, ə, o, a가 있고, 어미두모음은 i, a가 있으나 어간말모음 중 i는 모음 사이에서의 i삭제 규칙에 의해, ə, a는 동음삭제규칙에 의해 삭제되므로 실제로는 i, u, ɛ, o가 된다.

3.1 활용에서의 모음순행동화

먼저 어간말에 o를 가진 1음절 어간 동사에 대해 알아보자.

(1) ㄱ. ó + ato → wado(와도), ó + ima → óma(오면) (來)

ㄴ. pó + ato → pwado → paádo(파도), pó + ima → póma(보면) (視)

ㄷ. s'ó + ato → s'óodo(쏘아도), s'ó + ima → s'oma(쏘면) (射)

k'ó + ato → k'óodo(꼬아도), k'ó + ima → k'oma(꼬면) (撚)

위의 예에서 (1ㄱ)은 자음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로서 어간말모음과 어미두모음 a사이에 활음화가 된 다음 활음 삭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보상적 장모음화(compensatory lengthening)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이며, (1ㄴ)은 활음화 및 활음삭제를 경험한 뒤 보상적 장모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1ㄷ)의 경우에는 오히려 어미두모음이 어간말모음에 완전동화됨을 보여준다. 이런 음운과정에 관여하는 음운론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음운론적 강도(phonological strength)⁷⁾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모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음운론적 강도가 있을 뿐 아니라 모음에 선행 또는 후행하는 자음의 자질에 의해 모음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다.⁸⁾ 어간말모음의 환경은 같으면서 선행자음에 따라서 음운현상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p와 s', k'의 차이는 [+tense]의 有無의 차이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 같다. 국어에서 일탈적으로 논의되고 있듯이 [-cor]의 비설정적 자음이 설정적자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크다는 논리는 일단 여기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국어에서 [+tense]인 경음은 평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7) 음운론적 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Zwicky, A. M. (1973), Hooper, J. B. (1976) 및 김진우(1973), 김차균(1976), 이병근(1977), 정국(1980), 이동화(1983) 등

여기서는 이들 중래의 업적을 상기하면서 同化주의 구실을 주로 하는 음운은 彼同化音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크다는 해석에 바탕을 두기로 한다.

8) 이런 견해는 이미 이병근(1970), 최명옥(1982) 등에서 밝혀진 바 있다.

큰 자연부류 (natural class)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음운현상을 지배하는 음운규칙은 다음과 같다.

(2) 모음순행동화규칙 ① (임시)

어미 a는 경음을 선행한 어간말모음 o에 완전동화한다.

다음은 어간말모음이 u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3ㄱ)의 예들은 일단 활음을 형성하여 $wə \rightarrow o$ 의 음운과정을 밟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¹⁰⁾ 이런 음운과정을 동기화하는 음운론적 기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다만 선행자음이 (3ㄴ)의 경우와 달라서 양자 간에 상이한 음운현상을 보일 뿐이다. 역시 (3ㄴ)은 [+tense]의 선행자음을 가지면 순행동화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이에 대한 음운 규칙은 (4와) 같이 표시된다.

(3) ㄱ. $cú + ato \rightarrow coódo$ (주어토), $cú + ima \rightarrow cúma$ (주면) (授)

$tú + ato \rightarrow doódo$ (두어토), $tú + ima \rightarrow túma$ (두면) (置)

$nú + ato \rightarrow noódo$ (누어토), $nú + ima \rightarrow núma$ (누면) (泄)

ㄴ. $k'u + ato \rightarrow k'uúdo$ (꾸어토) $k'u + ima \rightarrow k'uma$ (꾸면) (夢)

(4) 모음순행동화규칙 ② (임시)

어미 a는 경음을 선행한 어간말모음 u에 완전동화한다.

이번에는 어간말에 i를 가진 동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예를 들어보자.

(5) ㄱ. $i + ko \rightarrow igo$ (이교), $i + ato \rightarrow jədo$ (여도) (戴)

$ií + ko \rightarrow iígo$ (이교), $ií + ato \rightarrow iído$ (이도) (聲)

ㄴ. $cí + ko \rightarrow cigo$ (지교), $cí + ato \rightarrow cədo$ (저도) (負)

$cʰi + ko \rightarrow cʰigo$ (치교), $cʰi + ato \rightarrow cʰədo$ (쳐도) (舞, 打)

$c'i + ko \rightarrow c'igo$ (찌교), $c'i + ato \rightarrow c'ədo$ (찌도) (蒸, 插)

ㄷ. $ki + ko \rightarrow kigo$ (기교), $ki + ato \rightarrow kiido$ (이어도) (匍匐)

$pi + ko \rightarrow pigo$ (페교), $pi + ato \rightarrow piido$ (베어도) (斷)

9) 물론 이런 음운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1ㄱ)에 대해 활음 형성 규칙을, (1ㄴ)에 대해 활음 형성 및 삭제 규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앞으로는 동화규칙에 대해서만 규칙 설정을 해나가기로 한다.

10) 최명옥(1982)에서는 일부 어사에서 $k'wəŋ > k'oŋ$ (確)과 같이 $wə > o$ 의 통시적 변화를 겪은 사실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 지역어에서는 이런 변화의 예를 발견하기 힘들어서 설명이 더욱 곤란해진다.

$p^hi+ko \rightarrow p^higo$ (피고), $p^hi+ato \rightarrow p^hiido$ (피어도) (開花)

ㄹ. $si\dot{i}+ko \rightarrow siigo$ (세고), $si\dot{i}+ato \rightarrow siido$ (세어도) (強)

$ci\dot{i}+ko \rightarrow ciigo$ (취고), $ci\dot{i}+ato \rightarrow ciido$ (취어도) (把)

$k'i\dot{i}+ko \rightarrow kiigo$ (케고), $k'i\dot{i}+ato \rightarrow k'iido$ (케어도) (質)

우선 (5ㄱ)은 모음어간의 경우인데 단모음의 경우는 활음을 형성하고 장모음의 경우는 순행동화를 일으킨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것은 모음의 장단(長短)에 따라 음운론적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며, 모음에서도 자음과 같이 [+tense]의 자질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 준다. 즉, 장모음에는 긴장성을 부여하여 단모음과 다른 음운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¹¹⁾ 따라서 국어의 음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tense] 자질의 설정은 자음에서나 모음에서나 매우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5ㄴ)의 경우는 어말모음에 선행하는 자음이 설정적자음인 치찰음인 터어 말모음과 어미모음 사이에 활음을 형성하는데 반해서 (5ㄷ)은 k, p등의 비설정적 자음이 선행하면 순행동화함을 보여준다.¹²⁾ 이런 사실은 국어에서 비설정적 자음인 순음과 연구개음이 설정적 자음인 치조음과 경구개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는 주장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5ㄷ)은 선행하는 자음의 자질에 관계 없이 어말모음이 긴장모음이면 어미 a는 순행동화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물론 이 때 어말모음이 기저로부터 장음이기 때문에 어미가 동화되어도 음장의 변화는 없으나 이것은 표면음성제약(surface phenetic constraint) 때문이지 앞의 여러 사실을 종합해볼 때 결코 어미 a가 삭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어미 a는 어간말음이 a나 ə일 때 동음삭제를 보이는 것 외에는 삭제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6) 모음순행동화규칙 ③ (임시)

어미 a는 어간말의 긴장모음 i 또는 비설정적자음을 선행하는 i에 완전동화

11) ‘일(一)’과 ‘일(事)’에서 처럼 체언에서의 長母音과 單母音을 緊張母音(tense vowel)과 弛緩母音(lax vowel)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김완진(1972)의 견해가 있다.

12) 최병욱(1982: 107)에서는 月城地域語에서의 kiido와 piido가 활음화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을 寧海地域語와 求禮地域語의 外的證據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은 그 지역의 화자들이 특정한 어사에 대해 활음 형성규칙 대신에 순행동화 규칙을 습득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런 해석일 것 같다.

한다.

다음으로 어간말음이 ε 인 경우를 알아보자 (7ㄱ, ㄴ)의 예들은 모음 어간에 어미 a 가 연결되어 기저에 없던 장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미가 어간에 순행동화함을 보여준다. 이 때 선행하는 자음의 자질에 관계없이 어간말음 ε 는 활음을 형성하지 않는데 그것은 활음 j 가 가지는 口蓋性이나 활음 w 가 가지는 圓唇性을 갖추지 못한 필연적인 음성적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예와 규칙은 다음과 같다.

- (7) ㄱ. $se + ato \rightarrow se\acute{e}do$ (서어도), $se + ima \rightarrow sema$ (새면) (漏)
 $c'\varepsilon + ato \rightarrow c'\varepsilon\acute{e}do$ (젓어도), $c'\varepsilon + ima \rightarrow c'\varepsilon ma$ (젓으면) (裂)
 ㄴ. $m\acute{e} + ato \rightarrow m\acute{e}\acute{e}do$ (매어도), $m\acute{e} + ima \rightarrow m\acute{e}ma$ (매면) (結)
 $p^h\varepsilon + ato \rightarrow p^h\varepsilon\acute{e}do$ (패어도), $p^h\varepsilon + ima \rightarrow p^h\varepsilon ma$ (패면) (打)
 $k'\acute{e} + ato \rightarrow k'\acute{e}\acute{e}do$ (깨어도), $k'\acute{e} + ima \rightarrow k'\acute{e}ma$ (깨면) (破)

(8) 모음순행동화규칙 ④ (일시)

어미 a 는 어말모음 ε 에 완전순행동화한다.

지금까지 1음절어간의 어말모음과 어미두음 a 사이의 모음순행동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 2음절어간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예를 들어 보자.

- (9) ㄱ. $p^hok\acute{e} + ko \rightarrow p^hok\acute{e}go$ (포개고), $p^hok\acute{e} + ato \rightarrow p^hok\acute{e}\acute{e}do$ (重)
 $talk\acute{e} + ko \rightarrow talg\acute{e}go$ (달래고), $talk\acute{e} + ato \rightarrow talg\acute{e}\acute{e}do$ (撫)
 ㄴ. $ciit\acute{e}\varepsilon + ko \rightarrow ciid\acute{e}\acute{e}go$ (기대고), $ciit\acute{e}\varepsilon + ato \rightarrow ciid\acute{e}\acute{e}do$ (依支)
 $pon\acute{e}\varepsilon + ko \rightarrow pon\acute{e}\acute{e}go$ (보내고), $pon\acute{e}\varepsilon + ato \rightarrow pon\acute{e}\acute{e}do$ (送)
 ㄷ. $c\acute{a}nti + ko \rightarrow c\acute{a}ndigo$ (걸더고), $c\acute{a}nti + ato \rightarrow c\acute{a}ndido$ (忍)
 $m\acute{a}si + ko \rightarrow m\acute{a}sigo$ (마시고), $m\acute{a}si + ato \rightarrow m\acute{a}sido$ (飲)
 $\acute{i}ki + ko \rightarrow \acute{i}gigo$ (이기고), $\acute{i}ki + ato \rightarrow \acute{i}gido$ (勝)
 ㄷ. $t'\acute{a}si + ko \rightarrow t'\acute{a}si\acute{g}o$ (따뜻하고), $t'\acute{a}si + ato \rightarrow t'\acute{a}si\acute{i}do$ (溫)
 $pip\acute{i} + ko \rightarrow pib\acute{i}\acute{g}o$ (비비고), $pip\acute{i} + ato \rightarrow pibi\acute{i}do$ (捻)
 $mekhi\acute{i} + ko \rightarrow mek^h\acute{i}igo$ (먹히고), $mekhi\acute{i} + ato \rightarrow mek^h\acute{i}ido$ (被食)
 ㄴ. $s'\acute{a}u + ko \rightarrow s'\acute{a}ugo$ (싸우고), $s'\acute{a}u + ato \rightarrow s'\acute{a}wado$ (鬭)
 $p\acute{e}u + ko \rightarrow p\acute{e}ugo$ (배우고), $p\acute{e}u + ato \rightarrow p\acute{e}wado$ (學)
 ㅁ. $k\acute{e}tu\acute{u} + ko \rightarrow k\acute{e}du\acute{u}go$ (커두고), $k\acute{e}tu\acute{u} + ato \rightarrow k\acute{e}d\acute{a}\acute{a}do$ (收)
 $pak'\acute{u}u + ko \rightarrow pak'\acute{u}ugo$ (바꾸고), $pak'\acute{u}u + ato \rightarrow pak'\acute{a}\acute{a}do$ (換)

여기에서 (9ㄱ)의 예들은 어간말음인 제 2 음절의 ε 에 어미 a 가 결합되면 장음이 발생하여 순행동화했음을 보여준다. (9ㄴ)의 예들은 제 2 음절 어간이 기저로부터 장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미가 순행동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이것은 표면음성제약 때문일 뿐 (9ㄱ)의 상황으로 미루어 순행동화했다고 봄이 온당한 해석일 것 같다. 단모음 뒤에서는 동화가 이루어지고 장모음 뒤에서는 어미가 삭제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다. (9ㄷ, ㄹ)의 예들은 제 2 음절의 어간말음이 i 인 경우인데 (9ㄷ)은 어미 a 가 연결되어도 아무런 음장의 변동이 없는데 (9ㄹ)은 어간말의 단모음이 장모음으로 실현되어 순행동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들이 가지는 성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제 1 음절에 高調(H)가 오면 제 2 음절에서 장음이 실현되지 않고 제 2 음절에 高調가 오면 장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성조가 이 지역어에서 음운현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9ㄷ)의 현상에 대해 어미 a 가 삭제되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어간말을 i 가 어미와 결합하여 활음을 형성하는 경우는 있어도 i 뒤에서 a 가 삭제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선행음절의 성조의 제약 때문에 후행음절의 장음이 실현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9ㅁ, ㅂ)은 제 2 음절의 어간말음이 u 인 경우인데 음운 환경에 관계없이 활음을 형성하나 (9ㅁ)은 $p\acute{e}wado \rightarrow p\acute{e}ado$ (배위도)와 같이 수의적으로 활음이 삭제되어도 보상적 장음화를 보이지 않으나 (9ㅂ)은 활음이 삭제된 뒤 보상적 장음이 발생한다. (9ㅁ) 역시 (9ㄷ)과 마찬가지로 제 1 음절에 高調가 있어서 제 2 음절의 장모음화를 방해하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에 대한 규칙은 (10)과 같이 표시된다.

(10) 모음순행동화규칙 ⑤ (임시)

2음절어간의 경우 제 2 음절 말모음이 ε, i 이면 어미 a 는 순행동화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규칙들은 이미 a 가 어간말음에 순행동화하는 비슷한 음운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규칙 (11)과 같이 통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11) 모음순행동화규칙 (1)

$$\left[a \rightarrow \left[\begin{array}{c} V \\ +back \\ +round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C \\ +obst \\ +tense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V \\ +back \\ +round \end{array} \right]] Vst \text{---} \right] (a)$$

$$\left. \begin{array}{l}
 a \rightarrow \left[\begin{array}{c} V \\ +high \\ -back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C \\ +obst \\ -cor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V \\ +high \\ -back \\ \langle +tense \rangle \end{array} \right] Vst \text{---} \\
 a \rightarrow \left[\begin{array}{c} V \\ -high \\ -back \end{array} \right] / \# \left[\begin{array}{c} V \\ -high \\ -back \end{array} \right] Vst \text{---} \\
 a \rightarrow \left[\begin{array}{c} V \\ -back \end{array} \right] / \sigma \left[\begin{array}{c} V \\ -back \end{array} \right] Vst \text{---}
 \end{array} \right\} \begin{array}{l} (b) \\ (c) \\ (d)^{13)} \end{array}$$

〈조건〉 2음절 어간에서 조조(H)가 제 1음절에 있으면 제 2음절의 장음 발생은 제약된다.

(1음절어간에서 (a) 어미 a는 경음을 선행한 어말모음 o, u에 순행동화하며 (b) 비설정적 자음을 선행하거나 긴장모음인 어간말음 i 뒤에서 순행동화할 뿐 아니라 (c) 어말모음 ə에도 순행동화한다. (d) 2음절어간의 경우에는 어간말음 i, e에 순행동화한다.)

모음순행동화는 두 모음이 인접해 있는 경우 이외에도 어간말의 활음(h, ʔ)이 삭제된 뒤에도 일어난다.¹⁴⁾ 먼저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 (12) ㄱ. nók + ima → nókima (놓으면), nók + ato → náádo (놓아도) (置)
 coók + ima → coókima (놓으면), coók + ato → coókdo (놓아도) (好)
 ㄴ. jéh + ima → jééma (넣으면), jéh + ato → jéédo (넣어도) (入)
 c'íh + ima → c'íéma (쟁으면), c'íh + ato → c'íédo (쟁어도) (搗)
 ㄷ. cií + ima → ciéma (지으면), cií + ato → cíédo (지어도) (作)
 páp + ima → pééma (부으면), páp + ato → pásédo (부어도) (注)

(12ㄱ)의 때는 어미 i가 h가 삭제된 뒤의 어간말음에 순행동화하나 어미 a가 연결되면 활음 형성 및 삭제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가 noh-(置)의 경우는 발생하나 coók-(好)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2ㄴ)의 예는 어간말의 h가 삭제된 뒤 어미 i, a가 순행동화됨을 보여주며, (12ㄷ)은 어간말 ʔ이 삭제된

13) 위의 규칙 표기에서 #는 단어경계표시로 어두위치를 나타내며, σ는 음절표시로서 제 1음절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기로 한다.

14) 줄고(1983)에서는 어간말의 k가 삭제된 뒤 순행동화가 일어나는 mak-(食)에 대해서도 규칙을 설정한 바 있으나, 한 개의 어사에 대해 하나의 규칙을 세우는 것은 너무 값비싼 문법을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예외적인 존재로 남겨 두기로 한다. 그 음운 현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㉞ múk + ima → múéma (먹으면), múk + ato → múédo (먹어도)

㉟ cúk + ima → cúéma (죽으면), cúk + ato → cúédo (죽어도)

다음 역시 더미 *i, a*가 순행동화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변형규칙으로 표시된다.

(13) 모음순행동화규칙 (2)

$$\left[\begin{array}{c} V \\ \text{--round}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h \\ \text{ } \end{array} \right] Vst \left\{ \begin{array}{c} i \\ a \end{array} \right\} \Rightarrow \begin{array}{ccc} 1 & 2 & 3 \\ & \emptyset & 1 \end{array}$$

(어간말을 *h, ɾ*가 삭제된 다음 어미 *i, a*는 *o, u* 이외의 어말모음에 순행동화한다)

3.2 곡용에서의 모음순행동화

곡용에서 모음순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명사의 어간말음인 연구개음(*ŋ, k*)이 삭제된 뒤 모음으로 시작되는 처격어미 *ε*나 향격어미 *i(ro)*가 연결될 때 어간모음에 순행동화되는 경우를 말한다.¹⁵⁾ 먼저 다음의 예를 보자.

(14) ㄱ. *matāŋ+ε→matāã*(마당에), *matāŋ+iro→matāãro*(마당으로)

cāŋ+ε→cāã(창에), *cāŋ+iro→cāãro*(창으로)

naacūŋ+ε→naacūũ(나중에)

ㄴ. *kolmók+ε→kolméo*(꼴뎌에), *kolmók+iro→kolmóoro*

pátak+ε→pátāa(바닥에), *pátak+iro→pátāaro*

kusók+ε→kusóo(구석에), *kusók+iro→kusóoro*

(14ㄱ)은 모음 사이에서 어간말의 연구개비음 *ŋ*이 삭제되기 전에 선행모음이 비모음화한 뒤 비음이 삭제되면서 처격어미 *ε*와 향격어미 *i(ro)*가 어간모음에 순행동화하는 과정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14ㄴ)은 역시 모음 사이에서 연구개음 *k*가 삭제되면서 명사 어간모음에 처격 및 향격어미 *ε, i(ro)*가 순행동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음운현상은 (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모음순행동화규칙 (3)

$$\left[\begin{array}{cc} V & C \\ & [+back] \end{array} \right] N \left\{ \begin{array}{c} ε \\ i \end{array} \right\} \Rightarrow \begin{array}{ccc} 1 & 2 & 3 \\ & \emptyset & 1 \end{array}$$

(명사어간의 연구개음이 삭제된 후 처격어미 *ε*와 향격어미 *i(ro)*는 선행모음에 순행동화한다.)

15) 모음 사이에서 특히 연구개음이 활발한 삭제물 보이는 현상은 음운습득의 순서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줄교(1983: 34)에서 보인 바 있다.

IV. 맺 음 말

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본고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1. 고령지역어의 음운체계는 대구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자음에 있어서는 s와 s'가 중화되지 않았다는 사실, 모음에 있어서는 i와 ɐ의 구별이 비교적 확실하다는 것 등이다. 음소체계는 다음과 같다.

$$\left\{ \begin{array}{l} \text{순수자음 : } p, p', p^h, t, t', t^h, s, s', c, c', c^h, k, k', k^h, m, n, \eta \\ \text{순수모음 : } i, u, i, \varepsilon, \partial, o, a \\ \text{우 음 : } l \\ \text{활 음 : } w, j, h, ? \end{array} \right.$$

2. 모음순행동화와 관계되는 몇몇 음운현상을 통해 어간말모음의 환경은 같으면서 상호간에 다른 음운현상을 보이는 것은 선행자음의 자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tense]의 경음이나 [-cor]의 비설정적자음이 선행되면 평음이나 설정적자음보다 同化주의 구실을 더욱 강력히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음운론적 강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3. 특히 모음순행동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장모음을 [+tense]인 긴장모음으로 규정하여 음운현상을 설명함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적어도 국어에서는 자음에서나 모음에서나 모두 [tense]의 자질을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어두에서만 장음이 발생하는 것이 국어의 일반적인 현상이나 이 지역어에서는 비어두음절에서도 장음이 실현되는데 이것은 성조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어두음절의 성조가 低調일 때 제 2음절에서 장음이 실현될 수 있고, 어두음절의 성조가 高調이면 제 2음절의 장음발생은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 고령지역어는 경북지역의 다른 지역보다 모음순행동화현상이 더욱 활발한데, 이것은 고령이 경북의 서남단에 위치해 있어 경남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경남동북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지역어의 접촉방언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 지역어 자체의 지역차와 세대차 등

에 대해 더욱 면밀한 연구를 진행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논 저

- 金完鎮, 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이론과 長母音의 境遇”, 「東亞文化」 11.
- 김차균, 1976, “국어의 자음접변”, 「언어학」 1(한국언어학회)
- 李基文, 1972, 「國語音韻史 研究」, 韓國文化叢書 13.
- 李基白, 1969, “慶尙北道の 方言區劃”, 「東西文化」 3(啓明大)
- 李東華, 1983, “安東地域語의 音韻同化와 削除”, 嶺南大 大學院
- 李秉根, 1970, “京畿地域語의 母音體系와 非圓唇母音化”, 「東西文化」 9.
- , 1977, “子音同化의 制約과 方向”, 「國語國文學論文集」(李崇寧先生古稀紀念), 塔出版社.
- , 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國語學」 6.
- 鄭 國, 1980, *Neuralization in Korean: A Functional View*. Ph. D. Dissertation, Texas University.
- 千時權, 1973, “慶北方語의 形態論的 考察”, 「清溪金思雄博士 頌壽紀念論叢」
- 崔明玉, 1976,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 ‘-아’의 音韻現象”, 「國語學」 4.
- , 1982,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出版部.
- 崔泰榮, 1983, 「方言音韻論—全州地域語를 中心으로」, 螢雪出版社.
-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Hooper, J.B. 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Zwicky, A.M. 1973, *Note on a Phonological Hierarchy in English*, in *Linguistic Change and Generative Phon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